

주간 증시 브리핑

2026.8.18(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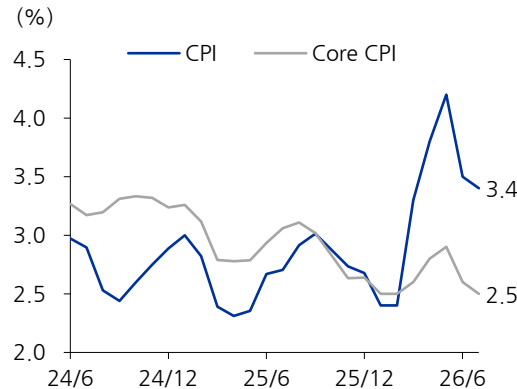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증시요약]** 지난 주 코스피는 美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3.4%yoy)이 예상 수준에 그쳤고, 美 AI 인프라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8주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함 (6,977p, 주간 +719p, +11.5%). 코스닥도 2주째 회복 추세를 이어감 (864p, 주간 +8.2%). 원달러 환율은 7월초 이후 지속된 하락 추세가 1,410~20원대에서 정체됨.
- **[해외증시]** 美 S&P500은 美 인플레이 우려가 완화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7월 소매판매 부진(-0.6%mom)과 장기금리 상승으로 상승분 반납 (주간 S&P500 -0.1%, 나스닥 +0.1%). 닷케이드 2주째 강세 (주간 +3.4%). 中 본토증시는 **유니트리 상장(8/19일)에 8조 위안(1,700조원)이 물림**, 텐센트가 투자 확대에 잉여현금흐름이 21년 만에 처음으로 (-)로 전환되자 홍콩증시는 약세 (상해 +0.4%, 홍콩 -1.9%).
- **[시장전망]** 코스피는 6월 이후 하락 폭(-38.6%, -3,521p)의 39%를 회복함. 코스피 변동성(VKOSPI)도 5월초 수준인 50pt대로 하락함. 증시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음. 하지만 반도체 수출과 실적 상향 모멘텀은 둔화 가능성이 있음. 증시의 추가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전망.
- **[주요일정]**
 - ① 美 8월 S&P제조업 PMI(8/21일)
 - ② 美 8월 S&P서비스업 PMI(8/21일)
 - ③ 美 7월 FOMC 회의록 공개(8/20일)
 - ④ 中 대출우대금리(1년/5년) 결정(8/20일)
 - ⑤ 日 7월 소비자물가지수(8/21일)
 - ⑥ 韓 휴장(광복절 대체공휴일, 8/17일)

구분		8/17	1W	1M
KOSPI	↑	6,978	11.5%	1.8%
S&P500	↓	7,745	-0.1%	3.9%
DOW	↓	53,460	-1.0%	2.5%
닛케이225	↑	69,220	3.4%	7.9%
상해종합	↑	3,983	0.4%	5.8%
원달러(원)	↓	1,413.0	-0.4%	-4.4%
엔달러(엔)	↑	159.2	0.3%	-1.9%
국고채3년(%)	↑	3.796	3.746	3.887
국고채10년(%)	↑	4.313	4.208	4.333
미국채10년(%)	↑	4.723	4.712	4.550
WTI(달러/배럴)	↑	85.0	3.5%	3.0%
한5-yrCDS(bp)	↓	22.3	-0.5	-0.8

CHART of the week

美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 美 7월 CPI +0.1%(+3.4%) 상승 (8/12일) 예상 부합,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후퇴

- 美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비 +3.4%**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함(6월 +3.4%yoy). **근원 물가는 전월비 +0.2%, 전년비 +2.5% 상승함(6월 +2.4%yoy)**.
- 물가둔화는 에너지가격 하락 영향이 컸음(전월비 -1.5%). 8월 물가는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물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가전 등 내구재 공산품 물가는 상승 중임(+0.3%mom). 그러나, 비내구재와 서비스물가상승세는 가파르지 않음.
- **美 연준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40%로 후퇴**함. 하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2%)와는 거리가 있음. 9월 물가지표 때까지 시간을 번 것으로 판단함.

2 韓 8월 1~10일 수출 +45.3%yoy 증가(8/11일) 반도체 모멘텀 둔화 가능성에 대비

- 韓 8월 1~10일 수출은 213억 달러로 **+45.3%yoy 증가**. 조업일수(7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0.4억 달러로 +45.3% 증가함. 수출 호조는 이어지고 있으나, 6월 69.6%보다 둔화됨.
- 8월 1~10일 반도체 수출금액은 100억 달러(+155.4%)로 8월 동기 기준 역대 최대임. **반도체 수출 비중도 46.8%**로 압도적임. 반면 선박(-58.2%), 승용차(-80.9%)는 부진함.
- 8월 반도체 전년비 수출 증가율 155.4%는 6월 199.5%, 7월 178.8% 대비 다소 둔화됨.
- 8월 수출은 월간 사상 최대 실적이 될 전망. 그러나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모멘텀도 서서히 정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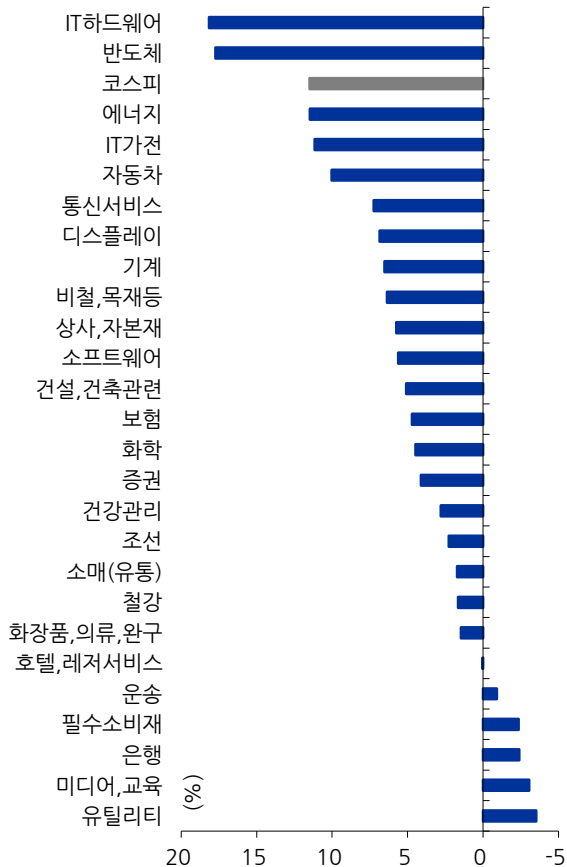
3 美 네오클라우드 2Q 실적 발표 (8/11~12일) AI 인프라 수요 재확인

- 美 코어위브는 2Q 매출 25.8억 달러(+112%yoy)로 시장 예상을 상회함.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서지 못했으나, **잔여계약가치(RPO)가 1,042억 달러(+246%yoy)로 급증**함.
- 동사의 연간 가이던스 및 투자지출 규모를 상향하며 **외형 가속+마진 개선**을 예고함.
- 네비우스도 2Q 매출 5.8억 달러(+454%), AI 클라우드 매출 +514%로 예상을 상회함.
- 2분기 체결 계약(10억 달러 이상 4건)의 70%에 선수금 조건이 포함되며 **재무 건전성까지 확보**함.
- AI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도 수요 우위, 공급 부족 및 GPU 임대 가격 상승 기조를 확인함. AI 투자지출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한 것으로 평가함.

4 韓 채권시장 동향(8/10~8/14) 8월 인상 경계 및 초장기물 불안에 베어스텝

- 국고채 3년물 금리 3.796%(+5.0bp), 10년물 금리 4.313%(+10.5bp) 마감.
- 미국 물가지표가 우호적으로 발표됐지만 국내 금리에는 별다른 영향 없었음. 유상대 한은 부채재보의 매파적 간담회로 8월 인상 경계심 여전했기 때문.
- 초장기물 수요 공백에 따른 투자심리 부진 및 금리 상승도 전체적인 장기금리 상승 견인.

주간 업종별 수익률(8/14 기준)



주요 경제지표 예상(8/17~8/21)

8월 7일 CPI(8/21일) → BOJ 10월 인상론 가능할 지표

- 8월 6일 전국 CPI와 근원 물가는 모두 +1.6%yoy를 기록하며 5월(+1.5%)에서 확대,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 신선 식품 제외(core-core)는 +1.7%yoy로 전월(+1.8%)에서 소폭 둔화
- 7월 도쿄 근원 CPI는 +1.9%yoy로 6월(+1.6%) 대비 상승. 신선식품-에너지 제외 도쿄 CPI는 +2.0%yoy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확산 시사
- 중동 리스크와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로 일본 물가 우려 상승. 마일 공조 환시 개입에도 달러엔 환율은 159엔 대까지 재차 상승하며 수입물가 부담은 가중됨
- 다만 정부 이자비용과 금리 등에 대한 악영향 고려할 때 BOJ가 인상 속도를 높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7월 도쿄 CPI 반등이 전국 지표로 이어진다면 BOJ의 10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8월 8일 S&P 제조업 PMI(8/21일) → 생산과 투입비용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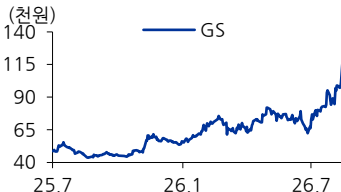
- 8월 8일 S&P 글로벌 제조업 PMI 확장 국면 유지 예상. 생산지수와 투입비용에 주목
- 8월 7일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53.9로 전월과 같은 수치 기록, 확장 국면 지속. 다만 생산과 신규주문 증가세가 둔화되며 6월까지 나타났던 강한 회복 모멘텀은 일부 약화됨
- 공급망 차질로 공급업체 납기 지연은 4년 만에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
- 투입비용 상승은 완화되는 추세이나, 중동 리스크 해소 지연으로 8월에도 에너지 물가의 불확실성이 높음
- 8월 제조업 PMI는 투입비용 상승세 둔화 여부에 주목. 또한 강했던 2분기 재고 비축 효과 소멸 이후 실수요 기반 생산과 신규주문 반등 여부도 확인 대상임

주요 경제지표 발표

매크로 / 시장 이벤트

8/17 (월)	■ 美 8월 NAHB 주택시장지수 (C: 10pt, P: 15.6pt) ■ 中 7월 소매판매 (C: +1.5%yoy, P: +1.0%yoy) ■ 日 2분기 GDP (C: +2.0%qoq, P: +1.8%qoq)	■ 韓 휴장(광복절 대체공휴일)
	■ 美 7월 산업생산 (C: +0.3%mom, P: +0.1%mom) ■ 유 8월 ZEW 경기기대지수 (P: 23.4pt)	
8/18 (화)		■ [실적발표] 美 홈디포
8/19 (수)	■ 日 6월 근원기계수주 (P: -1.9%yoy)	■ [실적발표] 美 아날로그 디바이스, TX, 타겟
8/20 (목)	■ 美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C: 25pt, P: 41.4pt)	■ 美 7월 FOMC 회의록 공개 ■ 中 대출우대금리(1년5년) 결정 ■ [실적발표] 美 월마트
	■ 美 8월 S&P 제조업 PMI (C: 53.5pt, P: 53.9pt) ■ 美 8월 S&P 서비스업 PMI (C: 53.8pt, P: 54.6pt)	
8/21 (금)	■ 유 8월 S&P 제조업 PMI (C: 51.4pt, P: 51.9pt) ■ 유 8월 S&P 서비스업 PMI (C: 51.4pt, P: 51.7pt) ■ 日 7월 소비자물가지수 (P: +1.6%yoy)	■ 美 옴닉론 기일

추천 종목

섹터/산업	종목/코드	편입가 (원) 편입 날짜	수익률	최근 1년간 차트	주요 실적 예상 & Valuation	투자 포인트																				
에너지	GS (078930)	- (8/18일)	신규 편입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25,184.1</td><td>28,446.3</td><td>28,140.0</td></tr><tr><td>영업이익</td><td>2,936.1</td><td>4,946.5</td><td>3,616.8</td></tr><tr><td>순이익</td><td>1,038.1</td><td>2,788.6</td><td>1,721.3</td></tr><tr><td>PER (배)</td><td>6.7</td><td>4.7</td><td>7.9</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25,184.1	28,446.3	28,140.0	영업이익	2,936.1	4,946.5	3,616.8	순이익	1,038.1	2,788.6	1,721.3	PER (배)	6.7	4.7	7.9	- GS AI인프라(100% 자회사)를 통한 AIDC(강원 동해) 1.2GW 1단계 개발 계획 및 총 2.4GW 규모의 중장기 목표 구체화 - 호실적에 AIDC 성장 모멘텀까지 부각되며 지주사 할인을 축소가 지속될 것이라 판단
	25년	26년	27년																							
매출액	25,184.1	28,446.3	28,140.0																							
영업이익	2,936.1	4,946.5	3,616.8																							
순이익	1,038.1	2,788.6	1,721.3																							
PER (배)	6.7	4.7	7.9																							
의료기기	파마리서치 (214450)	- (8/18일)	신규 편입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536.3</td><td>694.5</td><td>848.1</td></tr><tr><td>영업이익</td><td>214.4</td><td>270.9</td><td>337.0</td></tr><tr><td>순이익</td><td>168.3</td><td>222.5</td><td>274.7</td></tr><tr><td>PER (배)</td><td>28.4</td><td>20.8</td><td>17.0</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536.3	694.5	848.1	영업이익	214.4	270.9	337.0	순이익	168.3	222.5	274.7	PER (배)	28.4	20.8	17.0	- 스킨부스터 리쥬란(아시아/유럽 중심), 화장품(아시아/미국 중심) 수출 고성장으로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될 전망, 계절성으로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을 기대 - 아직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은 성장 초기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여력 높다고 판단 - 화장품 리쥬란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 브랜드 로열티 높이며 스킨부스터와의 시너지 기대
	25년	26년	27년																							
매출액	536.3	694.5	848.1																							
영업이익	214.4	270.9	337.0																							
순이익	168.3	222.5	274.7																							
PER (배)	28.4	20.8	17.0																							
반도체	삼성전자 (005930)	239,500 (8/3일)	+14.6%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333,605.9</td><td>738,625.2</td><td>943,801.8</td></tr><tr><td>영업이익</td><td>43,601.1</td><td>390,927.6</td><td>544,670.4</td></tr><tr><td>순이익</td><td>45,206.8</td><td>326,075.1</td><td>447,892.6</td></tr><tr><td>PER (배)</td><td>18.3</td><td>5.7</td><td>4.1</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333,605.9	738,625.2	943,801.8	영업이익	43,601.1	390,927.6	544,670.4	순이익	45,206.8	326,075.1	447,892.6	PER (배)	18.3	5.7	4.1	2H26~2027 실적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 높으며 3Q26 가격 협상이 시장 기대치 상회할 전망. 2027 HBM 가격 협상도 서프라이즈 요인 - 롤링 구조를 포함한 LTA 디테일 공개를 통해 장기 수요 가시성 확보에 대한 신뢰도를 시장에 제공 - 성과금 목적 자사주 매입 및 FCF 50% 근거한 대규모 주주환원 시작 임박 -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Blended ASP 유지 전망. 내년까지 지속적인 실적 아웃퍼폼 나타날 것
	25년	26년	27년																							
매출액	333,605.9	738,625.2	943,801.8																							
영업이익	43,601.1	390,927.6	544,670.4																							
순이익	45,206.8	326,075.1	447,892.6																							
PER (배)	18.3	5.7	4.1																							
복합기업	삼성물산 (028260)	329,000 (8/3일)	+12.2%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40,742.2</td><td>45,440.9</td><td>48,926.3</td></tr><tr><td>영업이익</td><td>3,292.7</td><td>3,796.4</td><td>4,374.0</td></tr><tr><td>순이익</td><td>3,906.7</td><td>3,873.7</td><td>4,503.0</td></tr><tr><td>PER (배)</td><td>16.9</td><td>22.3</td><td>18.9</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40,742.2	45,440.9	48,926.3	영업이익	3,292.7	3,796.4	4,374.0	순이익	3,906.7	3,873.7	4,503.0	PER (배)	16.9	22.3	18.9	- 올해 관계사 하이테크 수주 가이던스는 6.8조원, 상반기 이미 6.4조원 달성을 완료한 상태 - 현 추세라면 사상 최대 하이테크 수주를 기록했던 2023년 12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25년	26년	27년																							
매출액	40,742.2	45,440.9	48,926.3																							
영업이익	3,292.7	3,796.4	4,374.0																							
순이익	3,906.7	3,873.7	4,503.0																							
PER (배)	16.9	22.3	18.9																							
자동차 부품	HL만도 (204320)	46,900 (8/3일)	+21.7%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9,454.8</td><td>9,835.9</td><td>10,434.2</td></tr><tr><td>영업이익</td><td>357.1</td><td>411.7</td><td>472.1</td></tr><tr><td>순이익</td><td>122.8</td><td>227.4</td><td>275.1</td></tr><tr><td>PER (배)</td><td>27.6</td><td>13.3</td><td>10.9</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9,454.8	9,835.9	10,434.2	영업이익	357.1	411.7	472.1	순이익	122.8	227.4	275.1	PER (배)	27.6	13.3	10.9	-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형 시장 매출 증가, 전장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방어에 성공 - 유럽 시장 매출액은 유럽 OEM향 매출 증가하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액 기록 - 하반기 전장 및 로봇 액츄에이터 수주 가능성과 사업 확대 가능성 높아 하반기 부품사 탑픽으로 신규 추천
	25년	26년	27년																							
매출액	9,454.8	9,835.9	10,434.2																							
영업이익	357.1	411.7	472.1																							
순이익	122.8	227.4	275.1																							
PER (배)	27.6	13.3	10.9																							